

# “소통·유대 강화로 경우회 발전 이끌겠다”

●김용덕 제9대 목포해경재향경우회장 취임

내달 월례회 100명 참석 목표 '1+1제도' 활성화  
해상정화활동 등 매년 4회 이상 봉사활동 추진도

“새로운 목포해경재향경우회를 만드는 데 주력해 3년 후 반드시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용덕(69·사진) 제9대 목포해경재향경우회장이 11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임기는 3년이다. 취임식에는 박홍률 목포시장, 김원이 국회의원, 김인창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 회장은 “경우회장으로서 경우회가 좀 더 활기를 띠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회원 간 소통을 통한 유대 강화에 주력하겠다”며

“어떤 조직이든 구성원 간 신뢰와 화합이 없다면 그 조직은 결코 발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이와 관련 ‘월례회 100여명 참석’을 목표로 다음 월례회 때 전월 미참석했던 회원 한 명을 반드시 동반해 소통 공간을 넓혀가는 1+1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회장은 두 번째로 “지역의 사회공헌 활동과 해양경찰 발전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해 해상 정화 활동 등을 매년 4회 이상 전개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회원들에게 인생 2막 재취업의 기회 제공을 위해 본청 퇴직지원센터, 목포고용센터 등 다양한 취업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회원들이 적

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이러한 사업들이 순항하기 위해선 회원 상호 간 배려와 공감감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법정스님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변함없는 생각 때문에 자신을 비하하고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사고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만큼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보길 권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목포해경재향경우회는 해양경찰로 임직해 바다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거친 파도와 싸워가며 무단히 노력하다 명예롭게 퇴직한 300명의 회원들로 구성돼 있다.

/목포=정해선기자



## 나주경찰,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나주경찰서는 11일 “빛가람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신학기 맞이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나주경찰서, 나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학생·임원진 등 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진행됐다.

장진영 나주경찰서장은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갈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준환기자



## 고흥경찰, 초등생 견학 프로그램 운영

고흥경찰서는 11일 “점암초등학교 3-4학년 학생 5명을 대상으로 경찰서 견학 및 경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암초 학생들은 경찰서 112종합치안상황실 견학을 시작으로 무전기응답 체험, 수갑 및 삼단봉 체험, 진술녹화실 견학, 순찰차 및 사이카 탑승 등 경찰 업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했다.

허양선 고흥경찰서장은 “경찰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경찰의 이미지가 보다 더 친근해질 바라고 지역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흥=최봉환기자



## 마한농협주유소 양산점, 나주 취약계층 후원

초록우산 전남지역본부 “최근 마한농협주유소 양산점이 나주지역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쌀 120kg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찬규 마한농협주유소 양산점 소장은 “지역 내 어려운 아이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고 초록우산과 연이 닿아 좋은 일을 함께하고자 한다”며 “작지만 우리 아이들이 배부르고 행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성 초록우산 전남지역본부장은 “후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초록우산 전남지역 본부는 아동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주성학기자

## 결혼

▲김경윤(광주매일신문 상무이사)·이태복씨 장남 태홍(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군, 노수근·이명자씨 장녀 지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랑=28일(일) 낮 12시30분 센트럴광주호텔&레지던스 파레스가든룸(010-4541-2580).

▲박상훈·김영숙씨 장남 준성군, 이태일·김정숙씨 장녀 은지양=27일(토) 오전 11시 광주 까사디루체 1층 루체룸(062-710-4000).

▲김태수(호남도민일보 광주전남본부장)·이점숙씨 장남 정훈군, 심광철·박정숙씨 장녀 명희양=20일(토) 오전 10시30분 광주 하우스 오브 드레싱룸 1층 르세엘룸(광주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51-062-228-0000, 010-2682-7080).

▲조영권전 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상무·조은숙씨 장남 장근군, 김운수·이미자씨 장녀 주연양=20일(토) 오전 11시30분 광주 윤림제(광주시 동구 동산길 29-0607-1362-6226, 010-2443-1479).

▲심철환·이연주씨 장남 기성군, 김중구(무등축산 대표)·조성순씨 장녀 태인양=20일(토) 낮 12시, 추성창의기념관(담양군 담양읍 죽량문화로 380-061-380-2680, 010-6275-5312).



## 코레일 광주본부, KTX 개통 20주년 ‘해피트레인’ 행사

한국철도(코레일) 광주본부는 11일 “전날 신안군에 위치한 신안보육원과 함께 KTX 개통 20주년 기념 해피트레인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피트레인 행사는 신안보육원 원생 40여명을 초청, 생애 첫 KTX 여행 경험을 제공했으며 다양한 동·식물을 볼 수 있는 국립생태원을 방문했다. /광주=정해선기자

참가자들은 목포역에서 KTX를 타고 익산역을 거쳐 장항역에 도착, 국립생태원을 방문했고 ▲에코리움 관람 ▲생태교육 ▲해설투어 등이 진행됐다.

김성모 코레일 광주본부 목포관리역장은 “해피트레인 행사가 신안보육원 원생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정해선기자



## 담양산림정원과 나주 공원녹지과 ‘고향사랑’ 상호기부

담양군은 11일 “나주시 고향사랑기부제 공감대 확산과 상생 발전을 위해 상호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호 기부는 담양군 산림정원과 나주시 공원녹지과 직원 40여명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이뤄졌다.

담양군과 나주시는 담양군 인문학교육 전통정원 특구 활성화에 협조키로 했으며, 담양군이

5월에 열린 대나무축제에 나주시 직원들을 초대하는 등 훈훈한 정을 나눴다.

김은주 담양군 산림정원과장은 “지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나주시 공원녹지과 직원들과 협력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상호 교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 한국섬진흥원, 삼학도서 ‘섬 쓰담걷기’ 캠페인

한국섬진흥원은 11일 “지난 9일 목포 삼학도에서 ‘섬 쓰담걷기(섬 플로깅)’ 봉사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에는 오동호 한국섬진흥원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40여명이 참여했으며, 6만송이 튼립이 식재된 삼학도 공원에서 버려진 ▲페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 ▲담배꽂초 ▲일회용품 등 쓰레기 약 50kg을 수거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5번째로 진행된 ‘섬 쓰담걷기’는 ‘더 안전한 곳 깨끗한 섬’을 실현하기 위한 한국섬진흥원의 핵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 중 하나다. /목포=정해선기자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은 “삼학도는 한국섬진흥원과 가장 가까운 섬으로 직원들에게 인식처 같은 곳”이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 환경보호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 10월 출범한 한국섬진흥원은 지역사회와 동반으로 성장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광주신세계와 ESG 프로젝트, 전통시장 동행·환경보전 캠페인, 청사 옥상 개방, 섬지역 찾아가는 세타서비스 등 매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목포=정해선기자



## 한빛원자력본부, 창립 23주년 기념 사회공헌활동

한빛원자력본부는 11일 “지난 8-9일 자매결연마을인 영광 백수읍 대전2리에서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해 직원 재능기부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한빛원자력본부 창립 23주년을 기념해 ESG 경영 실천 일환으로 진행됐다. 봉사에는 한빛원자력봉사대, 미술동호회 등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마을 주택 10곳의 담장을 흰색 페인트로 칠한 후 개나리, 벚꽃 등으로 새롭게 꾸몄다.

최현규 한빛원자력본부장은 “한빛본부는 전국 지사 중 자매결연 마을이 최다인 만큼, 진정성 있는 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

## 환경공단-호남권생물자원관-키즈라라 ‘환경교육’ 협약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은 11일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 및 홍보 콘텐츠 제공’을 위해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주)키즈라라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환경교육인형극을 중심으로 한 탄소 저감 및 친환경생활 저변 확대, 환경보전 메시지 공동 홍보 등이다.

공단은 지난 수년간 ‘ESG 경영 확산과 지역 사회 중심의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한 다양한 환경교육을 추진해 온 바 있다.

이 중 지난 2022년부터 선보이고 있는 환경교육 인형극은 올해도 추진하며, 수도권과 환경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등을 직접 방문해 참여형 인형극 형태로 진행한다.

인형극을 관람한 어린이(보호자 포함)들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주)키즈라라 입장료를 최대 30%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협약 기관들은 환경교육 활성화와 홍보



콘텐츠 제공을 목표로 한 탄소저감활동 전개, 홍보물 공동배포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박종호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은 “미래 환경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의 환경의식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단과 협약기관들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정해선기자

## 해남 옥천파출소,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

해남경찰서 옥천파출소는 “최근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11일 밝혔다.

노인 인구가 많은 시골지역 특성상 이른 오전 및 늦은 오후 국도변 등 갖길 보행자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해당 시간대에 외출을 자제할 것과 외출 시 밝은 옷 입기 및 무단횡단 금지 등을 안내했다.

이어 최근 다양하게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인 부음 문자 및 검찰청 사칭 등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는 등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데 주력했다.

윤재길 옥천파출소장은 “거점순찰 및 마을



방문 등 주민들과 밀착된 치안 활동을 통해 주민 불안 해소 및 안전한 해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필용기자